

지역 매아리

고창군, 폐기물 소각시설 구축

고창군이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용량 포화(92%)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 자연적인 생태환경 조성과 환경부 정책방향인 쓰레기매립 제로화에 맞춰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소각로 설치사업은 2019년 까지 총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일원에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 폐기물 소각시설 구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현재 공법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착공해 2020년 운영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소각로에서 발생한 연소열을 이용하여 증기 또는 전기등의 에너지로 회수가 가능한 열원을 생산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함께 소각 폐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소방서, 야간불시가동훈련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재난현장 대응과 수습역량 강화를 위한 야간 불시가동훈련이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 부안효안병원에서 긴급구조봉제단으로 구성된 소방, 부안군 안전총괄과, 부안군 건설교통과, 부안경찰서 등 2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긴급구조봉제 단 훈련은 방화 누출 및 다수 사상자 재난상황을 가정해 긴급구조봉제단 가동 절차, 운영 요원의 임무 숙지 등 신속한 봉제단 가동과 현장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부안효안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누출이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로 내부에는 다수의 환자 및 보호자가 있어 많은 인명피해와 우려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 ▲대형화재 대비 초기대응능력 강화 ▲긴급구조봉제단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부안=이옥수기자

문화유산의 보물창고 고창에서 '가을밤문화' 만끽

'문화재 고창야행' 프로그램 풍성

22~23일 고창음성 일원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지취를 감추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수려한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날, 고창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뿌리 깊은 역사문화 향(香)을 담은 고창야행' 이 드디어 큰 판을 펼친다.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고창음성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문화재 고창야행'은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고창야행은 ▲야경(夜景)밤에 비추는 문화재 ▲야로(夜路)밤에 걷는 거리 ▲야시(夜市)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화(夜話)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식(夜食)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시(夜市)밤에 즐기는 장터 등 문화재와 함께하는 여덟 가지 밤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재 야행(夜行)'은 문화재를 품고 있는 지역(18개 시군구)을 선정해 지역의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숙박 체험 등 다채로운 역사문화체험의 기회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에서 야산차게 기획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다. 이를 그대로 밤에 이뤄지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급격한 도시



화로 인해 소도시 및 문화재 일원의 지역들은 점점 더 활기를 잃어갈 때 '문화재'를 활용하여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야행(夜行)'은 문화재체험거리와 중앙당산, 판소리박물관과 군립미술관 등리시네마 등 고창음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창야행 길따라가, 대동놀이, 고창음성 달빛 답성놀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월하기원, 야밤의 백중·두레싸움, 판소리 성지를 알리는 소리공양실소와 남너노소가 좋아하는 만담, 미술, 판토마임, 각종 버스킹 공연 및 고창의 옛 풍류와 풍물을 맛볼 수 있는 달빛장터도 열린다.

이외에도 고창판소리박물관, 문화의 전당 고창군립미술관 등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창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스토리텔링 공연과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22일과 23일 오후 8시에 고창음성 광장에서 펼쳐지는 '기원의 거울' 공연은 고창오거리당산재보존회 회원들과 고창군민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고창음성 축성 재현 오케레타로 고창야행의 대표프로그램이며 웅장한 불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야행은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이 산재하는 보고(寶庫)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사적 제145호인 고창음성과 국가민속문화재인 고창오거리당산, 동리 신재효고택, 천연기념물인 교촌리 밀구슬나무, 등록문화재인 구고창고등보통학교강당, 조양산당 등이 밀집한 고창음성 주변에서 도무형문화재인 고창오거리당산재보존회와 고창음악보존회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에 슬인들이 함께 모여 문화의 향기를 선사한다.

/고창=김영식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연관성 학술논문 발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은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현대사'라는 주제로 2017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이 처음으로 학술연구논문으로 발표되어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유바다 고려대 연구교수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인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연관성을 밝히는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인적 측면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 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등록된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3,144명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4,94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김구, 손병희, 박인호, 유태홍 등 20명이 양 운동에 동시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대다수 처형당하였음을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인원이다.

또한 민족대표 33인 중 권병덕, 나용환, 나인현, 박준승, 손병희, 이종훈, 박예환, 홍기조, 홍병기 등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으로 인적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유바다 교수는 주장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특별교육 실시

정읍시는 20일 제2청사 대강의실에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200여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참석했다.

교육은 로컬푸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생산농가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마련됐다.

교육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과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농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국립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이주호 주무관) 전문 강사가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해, 전북소식(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급에서 로컬푸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생기 시장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정읍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로컬푸드 사업 성공을 위해 농가 대상 안전성 교육과 직매장 출하 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음=김대환기자

산내교차로 인근 옥정호변 코스모스·해바라기 '활짝'

산내면 산내교차로 인근 옥정호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산내면이 국도 30호선 도로 옆 6만 6000㎡에 씨를 뿌리고 가꾼 이 꽃밭은 일명 '장금이 꽃밭'이다.

일대 산들과 어우러진 한들한들한 코스모스와 싷노란 해바라기의 조화가 아름답다.

산내면 장금리는 조선왕조 중종(中宗)의 총애를 받은 의녀(醫女)로 알려진 대장금의 고향이다.

역사학자 권희덕 씨에 의해 발간된 '대장금 마을의 향약 역사란 책자에는 역사 속에서 장금이는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에서 태어나고 조선 중종 때 입궁해 조선 최고의 어의녀가 됐다고 기록해 있다. 실제로 산내면에는 '장금리'라는 법정리가 있다. 시는 이러



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대장금 관련 스토리텔링에 나서는가 하면 대장금 마실길 조성,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면은 특히 "추석 연휴와 구절초축제 일정이 겹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는 물론 장금이 꽃밭 주변 풍광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통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기자

부안군 재활보건센터 개소 이용자 모집

균형능력측정기·유산소운동기 등 이용 재활운동 월·수·금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포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보건센터를 신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장애인 재활사업을 시작할 이용자를 모집한다.

재활보건센터는 부안군 등록 장애인 중 장애발생 2년이 지나고 재활전문 의사의 소견 상 재활운동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균형능력측정기 및 상·하지 운동기와 유산소운동기 등

을 이용해 재활운동을 월·수·금에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군 보건소는 체조, 공예, 레크리에이션 등 그룹 프로그램(하·목)을 운영해 장애인에게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재활보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진팀(☎ 063-

580-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장애인은 기초감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를 받은 뒤 재활전문 의사의 건강평가 후 재활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가 선정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보건센터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다름을 극복하고 꿈을 찾는 곳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림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 750ml 1ea/12%

GIF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 375ml 5ea/13%

GIF SET 6: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